

# 제3장 중기재정운용 여건

## 1. 대·내외 경제 전망

### □ 대외여건<sup>1)</sup>

- 세계경제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 흐름이 지속되겠으며, EU의 미약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, 미국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선진국은 2%대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
- 신흥국 경제도 개선세가 전망되나,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라 성장 속도는 과거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
- 다만, 미국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, 유가하락에 따른 산유국 경제 불안 등은 잠재적 위험요인

### <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, IMF, '15. 1월 >

(단위 : %)

구분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
세계	3.3	3.5	3.7	4.1	4.0
선진국	1.8	2.4	2.4	2.4	2.3
신흥국	4.4	4.3	4.7	5.2	5.2

1) 2014~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·총량분야 공개토론회 자료('14.6)

## □ 대내여건

-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 및 정책성과 가시화에 따라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히 개선될 전망
  - 다만, 선진국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, 가계부채 등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
- 세입여건은 완만한 경기회복세에 따라 세입 여건은 다소 개선되나 일부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
  - 최근 세수실적 부진 흐름, 낮은 물가상승세 등이 안정적 세입확보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
- 세출여건은 인구구조 변화 및 복지제도 성장으로 복지지출이 증가하고, 국정과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투자 소요도 증대
  - 보육인프라 확충, 아동돌봄 서비스 지원 등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에 따른 연금, 의료 등 의무지출 소요가 급속히 증가
  - 그간 추진해온 국정과제,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재정 투자 지속
- 수지·채무 측면에서는 경기회복세 지연 등에 따른 세수부진으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관리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
  - 통일 대비, 미래 위기 대응, 국가신인도 유지 등을 위한 재정건전성 강화의 필요성 증대되고
  - 지출 효율화 등 재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

## 2. 국가 재정정책 및 재원배분 방향

### □ 국가 중기 재정운용 방향<sup>2)</sup>

- 최근 경기회복세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는 등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재정은 경제활력제고를 적극 뒷받침하되,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
- 이를 위해 '15~'19 기간 중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되 구체적 규모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검토
  - 총수입은 비과세·감면 정비, 세외수입 확충 등의 노력과 함께 재정외로 운영 중인 예산 외 수입의 재정체계 내 편입 등 추진
  - 총지출은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면서도 모든 재정사업의 원점 재검토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
- 한정된 재원여건을 감안하여 민간투자 활성화,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등 민간 유동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기를 보완
-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,
  - 아직까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상황이나,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
  -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재정준칙 제도화\* 추진
    - \*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 검토
    - \* 신규 의무지출에 대한 Pay-go원칙(의무지출 정책추진 시 재원확보 대책 사전 검토), 재량지출 제한, 조세감면 제한 등

2)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·총량분야 공개토론회 자료(13.6)

## □ 국가 중기 자원배분 방향

-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안전과 관련된 복지·문화·안전분야 투자 비중 확대
  - 세대·계층간 복지 프로그램을 확충하고,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문화향유 기반 확대 등으로 국민행복 시대를 뒷받침하고,
  - 재난취약지역 상시 안전점검, 신종인플루엔자·에볼라 등 새로운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강화로 안전사회 구현
- SOC, 산업 등 민간역량 성숙분야는 민간역할을 확대하고 재정은 각 부처의 핵심역량을 중점 지원
  - SOC분야는 투자를 내실화하되, 위험 공유형 등 새로운 민자방식을 활용한 민간투자 활성화로 재정투자를 보완하고,
  - 주요국과의 FTA 확대에 따른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, 고부가 농어업 육성으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

## □ 향후 재정개혁 방향

- 경제 활력 회복 지원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
  - 정부·지방·공공기관 혁신, 민간참여 확대 등 전방위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여 노동·교육·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선도하고
- 이러한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
  - 내년도 예산편성 및 '15~'1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서민·취약계층·중소기업·청년 고용 등 꼭 필요한 곳에 적극 지원

### 3. 중기 세입 전망

- 내수의 완만한 회복 등 국내경제의 안정적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,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도 개선 효과 등으로 자치단체 자주재원 수입은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
- (지방세)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 증가와 자산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지방소득세·재산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<sup>3)</sup>되고,
  - 지방소비세 인상(부가가치세의 6→11%), 지방소득세의 지방세 전환 및 법인소득분에 대한 세액공제·감면 정비, 지방세 과세대상 추가\* 지방세 과세자료 통합시스템 구축('14~'16년) 및 지방세 감면 축소 등 제도개편은 지방세 증가 요인으로 작용
    - \* (취득세) 요트회원권 (지역자원시설세) 화력발전, (담배소비세) 물담배, 머금은 담배 등 신종담배
  - 부동산 거래량은 2012년 하락이후 2013년부터 회복세
  - 부동산 가격은 '09년에 상승추세로 전환되어 완만하게 상승
    - \* 지가변동률<sup>4)</sup>(%) : ('10년) 1.05% → ('11년) 1.17% → ('12년) 0.96% → ('13년) 1.14% → ('14년) 1.93%
- (세외수입)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아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나,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('14.8.7)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소폭 상승요인 존재
- 2014~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국세수입은 연평균 5.9% 증가할 전망이며, 이에 따라 자치단체 이전재원 수입도 영향 받을 전망

3) 중기 지방세수 추계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('12.12, 한국지방세연구원)

4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통계정보

- (지방이전재원) 지방교부세(내국세의 19.24%)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국세의 증가로 '14~'18년 기간 중 연평균 6.4% 증가 예상  
- 단, 2014년 내국세 세입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정산분(△1.6조원)이 2016년에 감액 반영되는 점을 감안할 필요
- (국고보조금) 정부 공약가계부에 따라 복지지출 분야, 안전 분야, 중소기업 지원 분야 등 보조금 증가 요인 상존
- 지방채 발행규모는 당분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할 전망
  -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하여 조기상환, 채무관리 목표제 등 지방채무 건전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

#### 4. 중기 세출 전망

- 복지제도 개편 및 사회복지인력 충원, 소방인력 및 장비 확충, 국고보조율 인하 등으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지속 증가 예상
  - '14년 기초연금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, '15년 기초생보 맞춤형 급여 개편 등 복지제도 변경으로 인해 지방 부담 증가
    - ※ 기초연금의 경우 향후 지방비 급증 예상('20년 4.4조원, '40년 35.5조원)
  - 정부대책으로 복지인력 약 7,400명 순증('11~'17년), 국가는 채용시기부터 3년간만 인건비 일부 보조
    - ※ 「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('11.7)」, 「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관리방안('14.10)」 : ('11~'14년) 3,340명, ('14년) 1,117명, ('15~'17년) 2,880명
  - '14년 국가예산 편성 시 26개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인하로 지방 부담 증가